

A Study on the Quantity and Quality of Accounting Research Performance

회계학 연구성과의 양(量)과 질(質)에 대한 분석

Eui-Kyung Lee(First Author)
Professor, Daejin University
(eklee@daejin.ac.kr)

.....

This study analyzed the quantity and quality of accounting research performances using the resource-based theory. The research performances of 225 professors majoring in accounting at 74 universities in Korea were studied, and the influencing factors were 2 university factors (university type, location in Seoul) and 4 researcher factors (US Ph.D., gender, major, CPA).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quantitative performance, US Ph.D. professors majoring in financial accounting and had short working period showed high performance in SSCI thesis, whereas in KCI thesis, the professors in public universities with long working period showed high performance. The qualitative performance was measured by the awards of the academic society.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awards of the American academic societies and the KCI journal societies, university type, majors, and CPA variables were significant. However, in the result of analysis with higher standards by limiting the awarding institutions to the American academic societies and top-registered KCI journal society(KASBA, KAA), US Ph.D. and CPA were significant variables.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focused on quantitative performances, this study can be said to have increased the depth and diversity of research by analyzing qualitative performances and comparing them with quantitative results.

Key Words: Resource-based Theory, Accounting Research Performances, Quantity, Quality, University Factors, Researcher Factors

.....

1. 서론

본 연구는 자원준거론의 체계에서 회계학 연구의 양(量)적 성과와 질(質)적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한 것이다. 연구성과는 연구자 개인의 성과이면서 동시에 대학과 국가의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많은 대학들이 연구성과를 증진시키고자 교수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독려하고 있으며 정부당국도 BK21, NURI사업 등 여러 사업을 통해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과거의 연구성과를 중요한 평가요소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연구과제의 수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도 연구성

Submission Date: 07. 31. 2023 Accepted Date: 09. 03. 2023

과를 중요한 평가요소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찾는 것은 매우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성과에 유효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해야 그 결과를 이용해서 정부나 대학당국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에서는 교수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정보비대칭에 의한 시장 실패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수들에 대한 보상체계를 수립할 때에 형평성을 높여서 구성원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대학교수의 연구성과를 대상으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기 위한 여러 연구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 연구들을 보면 대개 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 등 전공구분 없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이유는 접근이 가능한 특정한 대학교의 자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데 그 결과 연구 내용이 사례연구의 수준에 머물게 된다. 즉, 일반화에 한계를 갖게 되는 것이다. 전국적 범위로 한다고 해도 학문적 특성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면 분석결과는 의미가 덜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특정한 전공을 대상으로 다수 대학의 연구성과를 분석한 연구도 있었다. 외국에서는 심리학, 경제학 전공 교수의 연구성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있었다. 최근 국내에서는 경영학 교수의 연구성과를 분석한 연구가 있었다. 그렇지만 회계학 전공자들의 연구성과만을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국내에서는 회계학을 경영학의 하위 분야로 보는 시각이 많지만 경영학이 태동한 미국에서는 회계학이 경영학과 동등한 수준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회계학은 다른 경영학 각론에 비해서 세부전공 분야가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 등으로 특성이 뚜렷이 구별되는 편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회계학 연구성과를 대상으로 그 특성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연구성과를 분석하는 기존의 연구들은 대개 연구성과의 양(量)과 관련된 것이었다. 즉, 논문편수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단순한 논문 편수에서 벗어나 연구성과를 점수화해서 측정하고 이렇게 측정한 값을 분석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연구성과(논문)의 질(質)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논문이 게재된 학회지에 따라서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그동안 측정한 성과지표 중에서는 진전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부여한 가중치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에 많은 대학들이 교수들의 연구성과를 높게 요구하면서 연구의 양과 질에 대해서 두 개의 상반된 의견이 등장하고 있다. 일단 대학의 입장은 연구의 양을 늘리는데 치중하고 있는 편이다. 정부나 외부 대학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때 연구성과의 양에 대한 비중이 높게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 충족하느라 양을 늘리다보니 표절 시비가 그치지 않는다. 그 외에도 부실학회지나 약탈적 학술지에 논문을 내면서 양(量)을 채우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연구자들 중에는 연구의 양적 요건을 강화하다보면 시간에 쫓겨 고품질의 논문을 쓰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 편이다. 상반되지만 두 견해가 모두 일리가 있음에도 검증은 없이 주장만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질적 성과 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변수를 도입해서 분석하였다. 새로운 변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관련학회에서의 우수상 수상여부이다. 즉, 학회로부터 받은 우수상을 연구의 질적 성과 지표로 사용하여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양적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 비교하였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연구자원의 효율성 제고라는 관점에서 정리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 I 장 서론에 이어서 제 II 장에서는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제 III 장에서는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표본을 선정하였다. 제 IV 장에서는 실증분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석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제 V 장에서는 연구의 요약과 결론을 제시하였다.

II. 선행연구와 가설설정

2.1 선행연구

연구성과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1980년대부터 등장하였다. 연구의 접근 방식은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첫째는 대학교의 특성과 연구성과의 연관성을 보는 방식이고 둘째는 연구자 개인의 역량과 연구성과와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첫째 방식에서는 대학교 특성이 연구성과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여 대학의 설립유형, 지리적 위치, 대학규모와 같은 물리적 요인, 그리고 연구풍토 등의 문화적 요인을 분석하였다(Long & McGinnis, 1981; Allison & Long, 1990). 이러한 분석방식은 조직의 성과는 그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특성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자원준거론(resource-based view theory)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연구에 뒤이어 좀 더 다양한 자원의 개념을 도입해서 연구가 수행되었다(Dundar & Lewis, 1998). 이들은 주립대/사립대여부, 정교수의 비율, 대학원의 학생 수 등의 설명변수를 사용한 분석결과에서 사립대가 주립대보다 더 높은 연구업적을 보여서 대학 유형을 유의

한 변수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정교수가 많은 경우 연구업적이 더 높음을 보여 직급과 연구업적의 양(+)의 관계도 확인하였다.

둘째 방식은 연구자의 개인적 역량이 연구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전제 하에서 인종, 성별, 결혼, 직급 등과 같은 연구자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성과와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들이다. 이는 조직차원의 자원준거론을 개인차원으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Wanner et al.(1981)은 재직기간과 학교순위는 연구성과와 양(+)의 관계가 있지만 종신직 지위(tenure)는 음(-)의 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즉, 재직기간이 길수록, 학교랭킹이 높을수록 연구성과는 많지만 종신직 지위를 받고 난 후에는 연구성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Maske et al.(2003)와 Link et al.(2008) 등은 성별, 인종, 학교순위, 결혼여부, 보직유무 등의 변수가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인종변수와 달리 성별변수는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은 연구에서, 여성은 수업과 봉사활동에서 우위를 보였다. 그리고 보직교수들은 낮은 연구성과를 보였는데 이들은 행정업무에 치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다. 또 나이와 연구성과의 음(-)의 관계를 확인해서 나이가 들수록 연구력이 떨어진다는 결과를 보인 연구(Over, 1982; Oster & Hamermesh, 1998)도 있다. 이외에도 교수들의 수업부담, 성별, 직급, 연구비 등을 분석해서 수업이 많으면 연구성과가 낮은 음(-)의 효과가 있고 성별과 직급에서는 양(+)의 효과가 있음을 확인한 연구(Xie & Shauman, 1998; Hesli & Lee, 2011)도 있다. 수업학점이 부(-)의 효과를 미치는 것은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수감할 수 있는 결과이다. 그리고 직급이 높은 남성의 연구성과가 높은 것은 타 연구자들과의 교류가 많고 연구가용자원도 상대적으로 더 많기 때문이라

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 연구성과와 관련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수행되었다. Yook(2010)은 연구자 본인이 소속한 대학의 자료를 이용해서 교수업적을 교육업적, 연구업적, 봉사업적으로 구분하고 각 업적들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업적이 높을수록 교육업적이 낮아진다는 분석결과는 Xie & Shauman (1998)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그리고 연구업적보다 교육업적이 전체 업적평가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2014) 역시 본인이 소속된 대학 자료를 갖고 연구업적 및 강의평가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직급 및 재직기간이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부교수 직급에서 연구업적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근무기간이 늘어나면서 연구업적이 많아지다가 일정 시점 이후에서부터는 떨어지는 현상을 보고하였는데 이는 연구자의 고령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모두 특정한 1개 대학의 자료만을 분석한 사례연구이므로 그 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서 Jung(2011)은 표본을 확대해서 우리나라 교수들의 경력단계별 연구활동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연구선호도가 높은 교수가 연구업적이 높지만 일정 직급 이상이 되면 연구업적이 감소한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그리고 Kim & Park(2011)은 전국 대학의 779명 교수들의 SCI급 논문 수(최근 3년간)를 연구성과로 측정해서 분석했다. 분석결과는 연구선호도가 높고 공동연구자가 있는 교수, 연구중심대학의 교수들의 연구업적이 높다는 것이다. 분석대상을 전국 대학으로 확대하고 학문분야도 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에다가 의학계열까지 포함시켰지만 연구결과는 쉽게 예측될 수 있는 평범한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전체 학문분야를 함께 분석한 결과

는 연구지원정책의 유효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동질적인 학문분야를 집중해서 분석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래서 심리학 교수들만의 연구성과를 대상으로 한 연구(Over, 1982), 경제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Oster & Hamermesh, 1998; Maske et al., 2003)가 수행되었는데 이러한 연구는 상이한 학문적 성격이 혼재되는 것을 통제하는 장점이 있다. 국내에서는 경영학 교수의 연구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가 최근에 수행되었다(Lee, 2020).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사립대학이 국공립대학보다 연구성과가 높지만 국공립대학 중에서 거점대학은 연구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경영학 중에서 MIS와 마케팅 전공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연구성과가 많음을 확인함으로써 전공별로 유의한 편차가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실무경력을 가진 교수들의 연구성과가 높고, 그리고 출신학교로 보면 KAIST 대학원 출신 교수들의 연구성과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경영학 내에서도 성격이 비슷한 재무와 회계전공 분야의 연구업적을 분석한 연구(Lee, 2022)가 후속연구로 이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업적을 국제논문, 국내논문, 저서의 세 형태로 세분화시켜서 다양한 분석결과를 보였다. 특히 선행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설명변수로 연구자의 학업경로를 도입하였는데 학부와 대학원이 다른 경우 연구성과가 더 높은, 이중교배의 효과가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최근에는 연구성과에 대한 서지분석도 등장하고 있다. 학회지 *Journal of Derivatives and Quantitative Studies(JDQS)*에 30년간 발표된 논문에 대한 서지 분석을 통해서 논문을 많이 낸 저자, 많이 인용된 논문, 주요 키워드 등을 조사한 연구(Kim & Kim, 2021)가 있다. 그리고 영향력지수(IF)를 기준으로 '재무관리연구' 학회지의 연구논문에 대한 서지분석

(Jung 2021)도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으로 올수록 영향력지수가 낮아지면서 서울에 소재한 대학으로 연구성과가 편중되는 현상을 확인하고 그 대책으로 영향력이 큰 연구를 지원하고 지방 소재 대학의 연구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회계학 분야만을 대상으로 연구성과를 분석한 것이다. 그리고 연구성과를 측정하면서 양적 성과와 질적 성과로 분류해서 분석했다. 연구성과의 측정지표에 따라 분석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성과지표를 정의하는 것은 중요하다. 선행연구 중에는 연구성과를 논문의 수로 측정한 양적 연구(Noser et al., 1996; Bellas & Toutkoushian, 1999; Toutkoushian, 2003; Kim & Park 2011)가 많지만 연구비 금액이나 학술지 등급을 반영한 연구도 있다(Biglan, 1973; Dundar & Lewis, 1998; Marsh & Hattie, 2002; Bland et al., 2006). 이들 연구에 비해 본 연구는 양적 성과와 질적 성과를 함께 분석해서 연구를 심층화시키고자 하였다. 먼저 양적 성과는 전체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다음 단계로 SSCI논문과 KCI논문, 두 가지 유형으로 세분해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질적 성과는 학회의 수상여부로 측정해서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양적 성과의 분석결과와 비교하였다.

2.2 가설설정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연구성과)로 분석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회계학 전공 교수들이 발표한 논문의 양(量)적 성과와 질(質)적 성과이다. 양적 성과는 SSCI(또는 SCI)급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과 KCI급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양으로 측정하고 질적 성과는 소속학회에서의 수상여부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자원준거론에 근거하여 양적 성과와 질적 성

과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들을 설정하였다. 자원준거론(resource-based view)에 따르면 조직은 성과를 내기 위한 자원들의 집합체로 보고 보유한 자원의 차이가 성과의 차이를 가져온다(Wernerfelt, 1984; Barney 1991). 그리고 이때의 자원은 기업(조직)마다 다르다는 이질성과 다른 기업에게 완전하게 이동시킬 수 없다는 이동의 불완전성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이질성과 이동의 불완전성을 충족하는 변수로 본 연구에서는 조직의 자원을 연구자가 속한 대학교의 특성 두 가지, 대학의 설립형태와 서울소재여부로 설정하였다.

첫째 변수인 대학의 설립형태는 사립이나 아니면 국공립이나를 의미한다. 미국의 선행연구(Dundar & Lewis 1998)에서는 사립대학이 주립대학에 비해서 연구업적이 높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가 있는데 그 이유로는 사립대의 재정상황을 들고 있다. 이는 국내 선행연구(Lee 2020)에서 연구비가 연구성과에 양(+)의 영향을 준다고 밝힌 점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런데 후속연구(Lee 2022)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국공립/사립의 영향이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공립대의 재정상황이 더 나은 편이지만 사립대는 국공립대에 비해서 승진이나 재임용에서 더 많은 연구실적을 요구하면서 정년보장 이후에도 주기평가를 통해서 호봉승급을 제한하여 연구성과에 미치는 상반된 효과가 공존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방향성을 지정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귀무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대학유형(국공립/사립대)은 연구성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둘째 변수는 대학의 지리적 위치이다. 우리나라에

서는 정치, 경제 및 교육 분야도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되어 왔다. 그만큼 학생은 물론이고 교수 연구자들도 서울 선호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따라서 서울소재 대학은 우수인력 확보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학생 및 교수확보에서 유리하고 대학원생도 많기 때문에 연구환경도 좋은 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교랭킹이 높은 대학들이 서울에 많고 승진과 채용의 연구업적 요건도 서울외소재 대학보다 더 높은 편이다. 따라서 다음의 귀무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2: 서울소재여부는 연구성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상의 두 가지 가설은 모두 조직의 자원이 성과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Barney & Arikan (2001) 연구가설에 기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Barney(1991)는 자원기반 관점에서 자산의 특성을 가치(Value), 희소성(Rarity), 모방가능성(Imitability), 조직(Organization)을 의미하는 VRIO로 설명한 바 있다. 본 연구의 국공립/사립대와 서울/비서울이라는 변수는 이러한 관점에서 대학 자산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규제에 인해서 어떤 대학이 국공립대학이 되거나 서울에 소재한다는 것은 매우 엄격하게 제한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한이 결과적으로 대학들의 VRIO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Grant(2002)는 조직의 자원을 기업차원의 자원과 개인차원의 자원으로 구분하고 개인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조직 자원의 상당한 비중이 곧 개인의 역량(competency)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양적 성과와 질적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구자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연구자 요인

중에서 첫 번째 변수는 유학여부이다. 경영학은 물론 회계학도 미국에서 크게 발전된 학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이들 분야의 연구자료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연구기법도 앞서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국 대학원에서 학업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은 교수가 된 이후 연구성과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의 귀무가설을 세울 수 있다.

가설 3: 미국박사 교수의 연구성과는 국내박사 교수의 연구성과와 차이가 없다.

연구자 요인 중 둘째 변수는 성별이다. 미국의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개인요인 중 인종변수는 연구성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성별변수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사례가 있다(Maske et al.2003, Link et al.2008). 남성 중심으로 형성된 환경에서 남성 연구자들이 더 높은 성과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성별이 연구성과에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우리나라 회계학 분야에서도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다음의 가설을 세울 수 있다.

가설 4: 성별은 연구성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연구자 요인 중 셋째 변수는 전공이다. 회계학은 경영학의 다른 각론에 비해서 세부전공이 뚜렷한 차이를 갖고 있다. 회계학의 하부전공은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 등 세 개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세 개 하부전공의 특성 차이가 뚜렷한데 예를 들면 재무회계 분야는 실증적 성격이, 관리회계는 이론적 성격이 강한 편이다. 그리고 세무회계 분야는 국내 세무문제를 집중해서 다룬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하부전공의 차이가 연구성과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귀무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5: 회계학 내 세부전공의 차이는 연구성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연구자 요인 중 넷째 변수는 공인회계사(CPA) 여부이다. 경영학의 다른 분야와 달리 회계학에서는 공인회계사시험을 준비하면서 회계학 공부를 시작하고 계속 연구하여 교수가 된 사례가 많은 편이다. 여기서 공인회계사 자격증의 취득은 회계학은 물론 경영학 전 분야에 대한 일정 수준의 이해를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공인회계사로서 실무경험도 있을 것인데 이러한 배경은 연구 동기나 주제의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연구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귀무가설을 세울 수 있다.

가설 6: CPA 여부는 연구성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러한 연구자 요인들은 인적자본론에서의 인적자본에 해당하는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Becker (1962)는 소득(성과)의 결정요소로 인적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인적자본을 선천적 자본과 후천적 자본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에서는 성별이 전자에 해당하고 미국박사, 세부전공, CPA 등은 후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위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연구성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가설에서 제시된 6개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해서 OLS 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회귀분석을 수행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 연구성과를 나타내는 종속변수가 양적 변수와 질적 변수, 두 가지로 구분되기 때문인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본 논문에서는 양적 성과를 SSCI(또는 SCI), KCI로 구분해서 각각 200점, 100점을 부여

한 점수를 집계하였다. 우선 이 둘을 합친 전체 논문 성과를 먼저 분석하였다. 그리고 세부적인 성과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음 단계로 SSCI급 논문과 KCI급 논문성과를 각각 분석하였다.

두 번째,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연구의 질적 성과를 처음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한 성과지표로 관련학회의 수상여부를 사용하였다. 논문의 질을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같은 전공을 공부하는 연구자들의 모임인 학회에서의 평가는 동료에 의한 평가(peer review)로서 신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때 학회의 범위를 우선 미국회계학회(AAA), 국내 우수등재지 학회(한국경영학회, 한국회계학회)를 포함한 수상여부로 분석하고 다음에는 범위를 넓혀서 일반등재지 학회까지 포함한 수상여부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양적 성과에 대한 분석은 OLS 회귀분석을 사용하지만 질적 성과에 대한 분석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러한 분석모형의 구조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 <Table 1>이 된다. 다만 여기서 재직기간은 연구성과와 기계적인 인과관계를 가질 것이므로 통제변수로 사용한다.

그리고 이를 회귀모형으로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모형]

$$Y_{ij} = \lambda_i + \lambda_{1i}X_1 + \lambda_{2i}X_2 + \dots + \lambda_{7i}X_7 + \lambda_{8i}X_8 + \epsilon_i$$

(1) 종속변수

1) 연구성과의 양 분석에서

$$Y_{ij} = j\text{대학교 } i\text{교수의 연구성과}$$

(전체, SSCI논문, KCI논문)

2) 연구성과의 질 분석에서

$$Y_{ij} = \text{학회 우수상 수상 여부}$$

〈Table 1〉 Research Model Structure

dependent variable	category	independent variable
1. quantitative performance (SSCI/KCI)	university	1. establishment type 2. location in Seoul
2. qualitative performance society award (2Tiers/3Tiers)	researcher	3. US. Ph.D. 4. gender(female) 5. major 6. CPA
	control variable	7. working period

(수상했으면 1, 아니면 0)

(2) 독립변수

$X_1, X_2, \dots, X_7, X_8$ = 설립유형, 서울소재, ..., 공인회계사, 재직기간

여기서

X_1 = 사립대학이면 1, 국공립대학이면 0

X_2 = 서울에 소재한 대학이면 1, 아니면 0

X_3 = 미국박사학위이면 1, 아니면 0

X_4 = 여성이면 1, 아니면 0

X_5 = 관리회계 전공이면 1, 아니면 0

X_6 = 세무회계 전공이면 1, 아니면 0

X_7 = 공인회계사이면 1, 아니면 0

X_8 = 재직기간(년), 여기서 재직기간은 통제변수임.

보다 강의가 더 큰 비중을 가지므로 본 연구대상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그리고 연구업적은 공개 자료가 아니어서 개별적으로 직접 수집해야 한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자료를 구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전국 74개 4년제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회계학 전공 교수 225명의 연구업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구성내역을 보면 〈Table 2〉와 같다.

이렇게 구성한 표본을 세부전공별로 보면 재무회계 전공이 140명(62.2%)으로 가장 많고 세무회계 45명, 관리회계 40명으로 뒤를 잇는다. 박사학위를 취득한 국가 기준으로 보면 국내박사가 139명(61.8%)이고 미국박사가 83명(37%), 그 외의 국가박사가 3명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17명(7.6%)으로서 낮은 편이다. 그리고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한 교수는 56명(24.9%)이다. 단, 여기에서 공인회계사 변수는 한국공인회계사(KICPA)와 미국공인회계사(AICPA)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들 자료는 각 대학교의 홈페이지와 포털엔진, 그리고 한국연구재단의 정보시스템(Korea Researcher Information)에서 수집하였다. 종속변수가 되는 연구성과는 표본대학의 교수가 해당대학에 임용된 후 2019년 2월까지 발표한 논문을 집계한 것이다. 논문은 KCI(Korea Citation Index), SSCI(Social

III. 논문의 양(量)에 대한 실증분석

3.1 표본

본 연구의 표본은 4년제 대학교의 경영학과, 회계학과, 세무학과 등에 재직하고 있는 회계학 전공 교수들의 연구업적이다. 전문대학은 업적평가에서 연구

〈Table 2〉 Distribution of samples

region			sub-major		PhD country		gender/CPA	
Seoul	24 uv	105ps	financial accounting	140ps	Korea	139ps	male	208ps
Gyeonggi	12	16	managerial accounting	40	USA	83	female	17
Gangwon/Chungcheong	16	41					Total	225ps
Yeongnam	12	34	tax accounting	45	Others	3	CPA	56ps
Honam/Jeju	10	29					non CPA	169
Total 74 univs		225ps	Total	225ps	Total	225ps	Total	225ps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Total	SSCI	KCI	papers	period
Mean	1432.73	216.83	1215.91	22.74	17.78
Median	91.43	0	1000	20	16
S.D.	1371.41	478.96	1162.96	18.83	9.20
Variance	1880760	229398	1352478	354.67	84.64
Kurtosis	23.50	33.67	7.37	4.37	-0.67
Skewness	3.44	4.71	2.05	1.65	0.40
Minimum	0	0	0	0	0.5
Maximum	13085	4633	8452	116	40

Science Citation Index), SCI(Science Citation Index)급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들을 점수화하였다. 단독논문 기준으로 SSCI(SCI)급 국제논문은 200점, KCI급 국내논문은 100점을 부여하고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기여도와 참여자 수(n)를 반영하였다. 주저자와 교신저자라면 단독논문 기준 점수에 $2/(n+1)$ 를 곱하고 단순한 공동저자라면 $1/(n+1)$ 을 곱해서 주저자와 교신저자의 기여도를 단순 공동저자의 2배로 부여하였다.

그리고 연구성과를 설명하는 변수 중 대학교 요인은 대학알리미 사이트와 포털 검색엔진에서 검색하였고 연구자 요인은 각 대학의 홈페이지와 한국연구

재단에서 구하였다. 대학교 요인인 설립형태, 서울소재여부 등 2개 변수와 연구자 요인인 미국박사, 성별, 세무전공, 공인회계사 등 4개 변수 모두 더미변수이다. 채직기간은 연구성과와 기계적인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므로 통제변수로 사용된다. 이와 관련된 기초통계량을 〈Table 3〉에 제시하였다.

〈Table 3〉에 제시된 회계학 전공 교수들의 연구성과와 관련변수들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성과는 SSCI(SCI)급, KCI급의 논문,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교수로 임용된 이후 2019년 2월까지 연구를 수행한 논문성과를 점수로 나타낸 값이 1,432.73점이다. 그리

고 이의 세부적 구성 내용은 SSCI(SCI)급 논문이 216.83점, KCI급의 논문점수는 1,215.91점이다. 국내논문의 성과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논문편수를 보면 22.74편이다. 이는 점수화하거나 연구기여도를 고려하지 않은 성과이므로 가장 단순한 양적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셋째, 74개 대학교 225명 교수들의 평균 재직기간은 2019년 2월을 기준으로 볼 때 17.78년으로 나타났다. 이를 첫째, 둘째의 결과와 종합해서 요약하면 우리나라 회계학 전공 교수들은 매년 1.28편의 논문을 발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연구 기여도를 감안해서 1인 단독기준으로 환산하면 KCI급 논문 0.68편과 SSCI급 논문 0.061편이라는 의미이다.

3.2 전체 논문성과의 분석

SSCI(SCI)급 논문과 KCI급 논문을 합한 연구의 양적 성과를 피설명변수로 하고 대학교 요인과 연구

자 요인을 나타내는 설명변수로 회귀분석한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Table 4>에 나타난 분석결과에서 연구성과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교 요인으로 설정한 두 개의 변수, 대학 유형(사립/국립)과 서울소재여부 중에서 대학유형만이 양적 성과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값이 0.018312). 즉,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국립대학의 경우보다 연구성과가 더 적다는 것이다. 그런데 Dundar & Lewis(1998)의 연구, Lee(2020)의 연구에서는 사립대가 주립대(국립대)보다 더 연구성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사립대와 국내 국립대는 상대적으로 재정상황이 낫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는 Lee(2020)의 연구에서 연구비가 유의적으로 연구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연구비는 재정상황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내 사립대의 경우에는 재임용, 승진에서는 물론 정년보

<Table 4> Results analysis of the total thesis performance

variable		coefficient	t statistics	P-value
intercept		1678.18	5.9669***	9.79E-09
university	private	-502.88	-2.3773**	0.018312
	Seoul	261.3815	1.0977	0.273547
researcher	US.Ph.D.	-174.893	-0.7471	0.455844
	gender	-23.3507	-0.0653	0.947972
	managerial accounting	-828.607	-3.32397***	0.001042
	tax accounting	-140.384	-0.57925	0.563025
	CPA	89.1829	0.421935	0.673492
	working period	11.0381	1.058516	0.291002
number of observations(N) 225		R^2 0.076273 Adj. R^2 0.042061	F-value 2.22942 (significant F 0.026454)	

*, **, *** denote significance at 10%, 5%, 1% levels, respectively, in two-tailed tests.

장 후에도 연구업적에 따라 호봉승급제한과 같은 방식으로 더 많은 연구성과를 요구하는 면이 있다. 국내에서는 이렇게 양(+), 음(-)의 효과가 혼재하기 때문에 재정 상황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충분하다. 이외에도 Lee(2020)의 연구는 모든 논문과 저서를 포함하지만 본 연구는 논문 중에서도 SSCI와 KCI 논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분석결과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

둘째, 연구자 요인으로 설정한 네 개 변수 중에서는 유일하게 전공변수가 연구성과에 유의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관리회계 전공이 다른 전공(재무회계와 세무회계)에 비해서 연구성과가 낮았다. 관리회계는 이론적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실증적 특성을 갖는 재무회계와 세무회계 전공에 비해서 논문을 내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힘들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이러한 의견을 실증적으로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전체 논문성과를 함께 분석한 결과에 대해

서는 여러 면에서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SSCI급 논문과 KCI급 논문의 점수를 2:1로 부여한 것인데 이는 많은 대학들이 채택하고 있는 평가방식을 따른 것이지만 자의적이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 더구나 SSCI급 중에도 KCI급보다 수준이 낮은 학회지도 많다는 지적까지 있다. 따라서 이 두 개 등급의 논문성과에 대한 각각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아 그 분석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3.3 SSCI 논문성과의 분석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논문성과는 SSCI급 논문과 KCI급 논문으로 구성되는데 이 두 가지 논문의 성격에 차이가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SSCI급 논문 성과만을 피설명변수로 한 회귀분석의 그 결과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전체 논문성과를 한꺼번에 분석한 결과와 비교하면 뚜렷한 차이점이 나타났다. SSCI급 논문연구성과의 특징을 살펴

<Table 5> Results of analysis on SSCI-level thesis performance

variable		coefficient	t statistics	P-value
intercept		405.3319	4.213632***	3.69E-05
university	private	-93.4088	-1.29105	0.198076
	Seoul	79.5493	0.976759	0.329781
researcher	US.Ph.D.	149.1277	1.86239*	0.063906
	gender	74.86498	0.612385	0.540927
	managerial accounting	-192.025	-2.25215**	0.025318
	tax accounting	-186.355	-2.24812**	0.025578
	CPA	-1147.537	-1.58432	0.114584
	working period	-6.88774	-1.93113*	0.054776
number of observations(N) 225		R^2 0.114025 Adj. R^2 0.081211	F-value 3.474905 (significant F 0.000859)	

*, **, *** denote significance at 10%, 5%, 1% levels, respectively, in two-tailed tests.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SSCI급 논문성파에는 대학교 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SSCI 논문성파는 사립대학이든 국공립대학이든 차이가 없고 서울소재대학이든 서울외소재대학이든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전체 논문성파를 분석할 때 나타났던 대학교 변수의 영향력은 KCI급 논문성파에 국한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둘째, 연구자 요인에서는 미국박사, 전공, 재직기간 등 세 개 변수가 연구성파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비해서 성별, 공인회계사 등 두 개 변수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미국박사변수는 양(+)의 회귀계수이면서 P-값이 0.063906이다. 이는 미국박사가 국내박사에 비해서 SSCI 논문을 더 많이 쓴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으로 영어논문을 써본 경험이 이러한 결과를 만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경영학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Lee, 2020)에서는 미국박사변수가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었는데 이는 모든 논문과 저서까지 포함한 것이었다. SSCI급 논문에서는 미국박사에 대한 기대가설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세부전공변수를 보면 재무회계에 비해서 관리회계와 세무회계 분야가 공히 SSCI 논문성파에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관리회계는 이론적 성격이 강해서 실증적 성격의 재무회계에 비해서 양적으로 논문성파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비해 세무회계 전공은 주로 국내 세무주제를 많이 연구하다 보니 그 결과물이 대부분 국내학회지에 발표되기 때문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SSCI급 논문성파는 재직기간과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대학에 오래 재직하고 있는 시니어 교수보다 최근에 임용된 주니어 교수들이 SSCI

급 논문성파가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추정된다. 각 대학들이 최근에 와서 교수들의 신규임용은 물론 승진요건에서도 SSCI급 논문을 요구하는 추세가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된다.

3.4 KCI 논문성파의 분석

SSCI급 논문성파의 분석에 이어서 이번에는 KCI급 논문성파만을 피설명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Table 6>에 제시하였다.

<Table 6>에 나타난 분석결과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KCI급 논문 성파에서는 대학요인 중 대학유형은 영향을 주지만 서울소재 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에 제시된 결과를 보면 KCI급 논문성파는 국공립대학이 사립대학보다 더 많다는 뜻인데 전체 논문성파를 분석한 결과인 <Table 4>에서 국공립대학이 사립대보다 논문성파가 더 많은 것은 이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를 설명하는 원인으로 최근 15년간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사립대가 국공립대에 비해서 악화된 재정상태도 제시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선행연구(Lee, 2020; Lee, 2022)의 결과에 따르면 과제당 교내 연구비가 연구업적의 중요한 결정변수로 파악되었는데 교내 연구비는 학교 재정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교내 연구비가 SSCI와 KCI 논문에 모두 지원되지만 KCI 논문을 쓰던 연구자가 SSCI 논문으로 성과의 유형을 바꾸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므로 KCI 논문성파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한다.

둘째, 연구자 요인에서는 미국박사, 전공, 재직기간 등 세 개 변수가 연구성파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SSCI급 논문성파와 동일하지만 그 방향은 판이하다. 먼저 미국박사변수는 SSCI급 논문

〈Table 6〉 Results of analysis on KCI-level thesis performance

variable		coefficient	t statistics	P-value
intercept		1272.85	5.435846***	1.47E-07
university	private	-409.471	-2.32499**	0.021001
	Seoul	181.8322	0.917203	0.360059
researcher	US.Ph.D.	-324.021	-1.66237*	0.097888
	gender	-98.2157	-0.33004	0.741687
	managerial accounting	-636.582	-3.06718***	0.002437
	tax accounting	45.97085	0.227827	0.819996
	CPA	203.7201	1.157642	0.248288
	working period	17.92588	2.064709**	0.040145
number of observations(N) 225		R^2 0.109584 Adj. R^2 0.076605	F-value 3.32289 (significant F 0.001322)	

*, **, *** denote significance at 10%, 5%, 1% levels, respectively, in two-tailed tests.

서는 양(+)의 관계였지만 KCI급 연구성과에서는 반대로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박사 교수들은 국내박사 교수들에 비해서 SSCI논문은 많이 쓰지만 KCI논문은 적게 쓴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국내박사 교수들이 미국박사 교수에 비해서 SSCI논문은 적게 쓰지만 KCI논문은 더 많이 쓰고 있다는 의미와 같다.

셋째, 세부전공 변수를 보면 재무회계에 비해서 관리회계가 KCI급 논문성과에서도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즉, 관리회계분야는 국제논문, 국내논문 여부와 무관하게 성과가 적는데 이는 이론적 면이 강한 학문적 특성에 기인 때문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세무회계는 국내논문에서 재무회계와 비교해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회계의 이러한 결과는 전술한 바와 같이 연구대상에 국내 세무주제가 많고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국내학회지에 많이 발표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넷째, 앞서 SSCI급 논문성과가 재직기간과 음(-)의

관계를 보인 것과는 반대로 KCI급 논문성과는 재직기간과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대학에 오래 재직하고 있는 시니어 교수들의 논문성과가 주로 KCI급 한글논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재직기간이 SSCI급 논문성과와 KCI급 논문성과와의 상반된 결과가 합쳐져서 〈Table 4〉에서는 전체 논문성과가 재직기간과 관련성이 없는 것처럼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V. 논문의 질(質)에 대한 실증분석

4.1 질적 성과 지표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회계학 연구자가 관련 학회로부터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는가의 여부를 질적 지표로 사용해서 분석하였다. 논문 성과에 대한 양적 지표와 달리

질적 지표는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렵다. 질적 지표를 반영하기 위해서 임팩트 지수를 이용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지만 이 역시 학회의 조직적 활동으로 임팩트 지수를 높이는 등의 폐단이 보도되고 있다(동아일보 2022년 5월 31일).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본 연구는 학회의 우수논문상이 동료 평가(peer review)에 기반한 결과이기 때문에 신뢰할만한 지표라고 판단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학회의 등급을 세 개로 구분하였다. 1등급(1-Tier)학회로는 미국유명학회, 2등급(2-Tier)학회로는 우수등재지를 학회지로 갖고 있는 국내학회, 3등급(3-Tier)학회로는 일반등재지를 학회지로 갖고 있는 국내학회이다. 구체적으로 1등급 학회는 미국회계학회(AAA: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를 의미하고, 2등급 학회는 한국경영학회와 한국회계학회, 2개 학회를 의미한다. 그리고 3등급 학회는 한국회계정보학회, 한국관리회계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포함한다. 여기서 2등급과 3등급의 구분은 한국연구재단(NRF)에서 분류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수등재지와 일반등재지의 구분기준을 따른 것이다.

4.2 로지스틱 분석결과

연구성과의 질적 지표를 학회의 수상여부로 나타낸다면 그 값은 수상=1, 그렇지 않으면 =0이 된다. 종속변수가 이렇게 두 값 중 하나를 갖는 범주형으로 나타난다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적합하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학회의 수상여부를 두 가지 단계로 구분해서 분석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우선 1등급, 2등급, 3등급 학회를 모두 포함한 세 개 그룹의 수상여부를 종속변수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1등급과 2등급 학회, 두 개 그룹까지의 수상실적만 반영하여 질적

기준을 더 높게 설정해서 분석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 세 개 그룹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부터 살펴보겠다. 분석결과는 <Table 7>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7>을 보면 세 가지 독립변수가 유의한 설명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사립대학변수가 유의한 음(-)의 관계를 갖는데 이는 국공립대학의 연구자들이 질적으로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둘째, 관리회계 전공은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양적인 성과에서 음(-)의 관계를 보였던 것과 동일한 결과이다. 이는 관리회계 분야의 경우 전공의 특성상 다른 전공에 비해서 논문의 양이 적어서 수상대상에 많이 오르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공인회계사 변수가 매우 유의한 양(+)의 관계로 보이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이는 공인회계사인 연구자들이 그렇지 않은 연구자들에 비해서 더 높은 질적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인데 수험과정에서 공부한 내용이나 실무경험이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함께 제시된 분류표를 보면 로지스틱 회귀모형이 68.89%의 분류정확도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질적 성과의 기준을 높이는 방안으로 수상기관을 미국회계학회, 우수등재지학회(한국경영학회, 한국회계학회), 두 개 그룹만으로 한정해서 분석하였다. 이렇게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 <Table 8>이다.

<Table 8>의 분석결과를 보면 유의한 설명변수가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앞에서 유의했던 국공립대학의 변수는 유의성이 없어졌고 미국박사 변수의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3개 그룹의 학회 중에서 국공립대학 연구자들은 일반등재지 학회에서 많이 수상을 했지만 수상난이도가 높아진 2개 그룹의 학회에서는 미국박사 연구자들이 많이 수상한 것이라고

〈Table 7〉 Results of logistic analysis on 3-Tiers academic awar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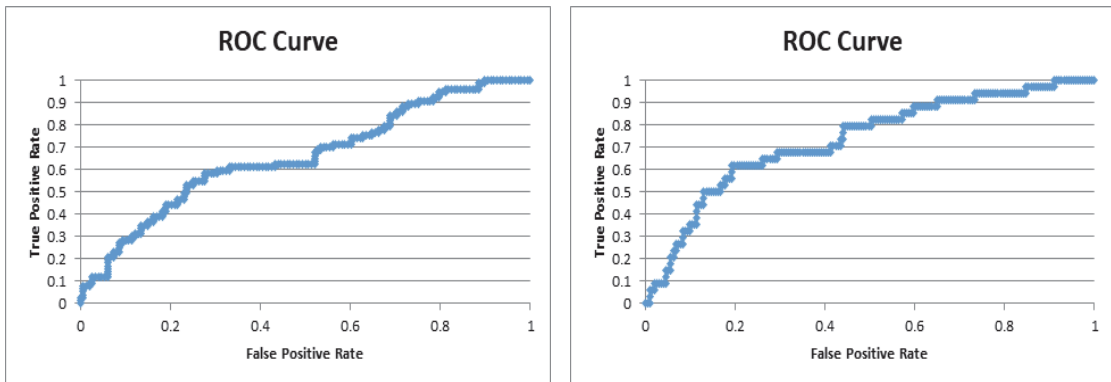
variable		coefficient	Wald statistics	P-value
intercept		-0.63878	1.923191	0.165505
university	private	-0.59807	2.968384*	0.084907
	Seoul	0.447535	1.316727	0.25118
researcher	US.Ph.D.	-0.11142	0.08597	0.769364
	gender	0.296555	0.255419	0.613285
	managerial accounting	-0.9585	4.561142*	0.032705
	tax accounting	-0.49463	1.508396	0.219384
	CPA	0.939639	8.095651***	0.004437
	working period	0.010455	0.368537	0.543803
Classification Table				
	Suc-Obs	Fail-Obs		
Suc-Pred	20	13	33	
Fail-Pred	57	135	192	
	77	148	225	
Accuracy	0.25974	0.912162	0.688889	
Cutoff	0.5			

*, **, *** denote significance at 10%, 5%, 1% levels, respectively, in two-tailed tests.

〈Table 8〉 Results of logistic analysis on 2-Tiers academic awards

variable		coefficient	Wald statistics	P-value
intercept		-2.30354	12.39626	0.00043
university	private	-0.75511	2.532373	0.111532
	Seoul	0.165427	0.105221	0.745652
researcher	US.Ph.D.	1.248982	6.283087**	0.01219
	gender	0.081768	0.009217	0.923515
	managerial accounting	0.059961	0.012141	0.912263
	tax accounting	0.108454	0.03762	0.846208
	CPA	1.301655	10.13731***	0.001453
	working period	-0.00295	0.014129	0.905382
Classification Table				
	Suc-Obs	Fail-Obs		
Suc-Pred	0	2	2	
Fail-Pred	34	189	223	
	34	191	225	
Accuracy	0	0.989529	0.84	
Cutoff	0.5			

*, **, *** denote significance at 10%, 5%, 1% levels, respectively, in two-tailed tests.



〈Figure 1〉 ROC curve of logistic analysis on 3, 2-Tiers academic awards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때에는 관리회계 분야에서 음(-)의 효과도 찾을 수 없다. 또 공인회계사 변수는 2개 그룹의 학회로 범위를 좁혀도 매우 높은 유의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공인회계사인 연구자들이 두 개 그룹이나 세 개 그룹과 같이 범위를 다르게 설정해도 질적 성과가 높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분류표에서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분류정확도를 보면 0.84로 나타났는데 이는 세 개 그룹을 대상으로 한 0.69에 비해서 훨씬 높아진 값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Figure 1〉에 ROC(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로 제시하였다. 세 개 그룹을 대상으로 분석한 ROC Curve와 두 개 그룹만을 대상으로 한 ROC Curve를 비교해 보면 두 개 그룹만을 대상으로 한 ROC Curve가 더 좌상향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개 그룹만을 대상으로 수상여부를 보는 것이 질적 지표를 더 엄격하게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분류의 정확도가 더 높아진 것이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자원준거론에 근거해서 회계학 연구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한 것이다. 학문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 학문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특정한 분야의 연구성과를 분석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고 활용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심리학, 경제학 등의 특정한 학문분야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있었고 국내에서는 최근에 경영학을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 그리고 좀 더 분야를 좁혀서 재무와 회계분야를 함께 분석한 선행연구도 있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과는 차별적으로 본 연구는 경영학 내에서 단일 전공으로 회계학 연구성과만을 분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 74개 대학의 225명 회계학 전공 교수들의 연구성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들이 연구의 양적 성과를 분석하였는데 비해서 본 연구는 양적 성과는 물론 질적 성과도 처음으로 함께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양적 성과를 논문실적으로 측정했고 질적 성과는 학회의 수상여부로 측정했다.

이러한 성과를 설명하는 변수는 조직의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교 요인, 그리고 개인의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자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대학교 요인은 연구자가 소속한 대학의 특성으로 대학 유형(국공립 또는 사립)과 지리적 위치(서울소재여부)의 더미변수를 사용했다. 그리고 연구자 요인은 연구자 개인적 특성으로 미국박사, 성별, 세무전공, 공인회계사 등의 변수를 사용했다. 양적 성과는 전체 논문실적을 분석한 후 이를 SSCI급 논문실적과 KCI급 논문실적으로 세분해서 각 실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한편 질적 성과는 학회의 수상여부로 측정하였는데 먼저 수여학회를 미국유명학회, 우수등재지, 일반등재지 학회로 해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질적 기준을 높여 미국유명학회와 우수등재지 학회만으로 좁혀서 분석을 추가했다. 이렇게 양적 성과와 질적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찾아낸 분석결과를 요약해서 <Table 9>에 제시했다.

표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양적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첫째, 사립대학의 경우 국

공립대학에 비해 논문 성과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주로 국공립대학의 KCI급 논문성과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서울소재, 성별, 공인회계사 변수는 논문의 양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미국박사는 국내박사에 비해서 SSCI 논문을 더 많이 쓰지만 KCI 논문은 더 적게 쓰는 것으로 보였다. 넷째, 관리회계 분야는 SSCI급 논문과 KCI급 논문 등 국내외를 불문하고 다른 전공에 비해서 논문 성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무회계 분야는 SSCI급에서 재무회계에 비해서 논문성과가 낮았다. 다섯째, 통제변수로 사용된 재직 기간은 SSCI급 논문성과와 음(-), KCI급 논문성과와 양(+)의 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SSCI급 논문실적이 임용과 승진요건에 포함된 것이 최근의 추세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시니어 교수들은 KCI급 논문성과가 많고 주니어 교수들은 SSCI급 논문성과가 많은 것이다.

질적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세 등급의 학회를 모두 포함한 경우에는 사립대학과 관리회계 전공변수가 음(-)의 부호를 보였다. 이는 수상

<Table 9> Summary of analysis results

	quantity of research performance			quality of research performance	
	Total	SSCI	KCI	3 Tiers	2 Tiers
private	(-)**		(-)**	(-)*	
Seoul					
US Ph.D		(+)*	(-)*		(+)**
gender					
managerial accounting	(-)**	(-)**	(-)**	(-)*	
tax accounting		(-)**			
CPA				(+)**	(+)**
working period		(-)*	(+)**		

*, **, *** denote significance at 10%, 5%, 1% levels, respectively, in two-tailed tests.

실적 중에서 일반등재지 학회의 수상 실적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국내논문의 양적 성과에 대한 분석결과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공인회계사 변수는 질적 성과와 매우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인회계사 수험공부와 공인회계사로서의 실무 경험이 논문의 질적 성과에 양(+)의 영향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수상실적의 범위를 미국저명학회와 우수등재지로 좁힌 결과 미국박사 변수가 의미 있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미국박사 교수들이 SSCI급 논문 성과에서 양의 관계를 보였던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갖는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분석자료가 2019년 2월 기준 시점이므로 현재(2023년) 기준으로 보면 시의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렇지만 본 연구는 시의성보다는 연구자 개인별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어서 연구자별로 대학에 임용된 시점부터의 누적된 자료가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자료를 분석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표본규모가 작아서 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하여 시의성은 높일 수 있지만 연구자별로 다른 개인적 상황(예를 들면 승진이나 재임용을 앞둔 시기)이 반영되어 연구성과가 특정시기에 편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분석 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현실적 상황이 그대로 반영되어 표본이 비대칭적으로 구성되었다. 예를 들면 전공에서는 재무회계 연구자가 60%를 넘고 학위취득국가는 국내박사가 60%를 넘게 나타났다. 특히 성별로는 여성연구자는 7%대에 그쳐서 이에 대한 분석결과의 강건성에 의의가 제기될 수 있다. 향후 대응 표본의 규모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룰 때 동일한 분석방식으로 결과를 구해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종전의 선

행연구들과 달리 회계학 분야만을 대상으로 연구성과를 분석함으로써 학문적 특성이 가장 잘 반영된 연구결과를 도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회계학의 세부 전공분야를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로 구분하였고 공인회계사 변수를 도입해서 분석한 점이 의미 있다고 본다. 즉, 세부 전공의 특성이 연구성과에 차별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하여 확실히 평가를 경계할 수 있는 근거를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연구자의 개인적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조직의 요인이나 전공의 차이가 미치는 부분은 제외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회계학 분야의 전문자격증이 갖는 신호로서의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다른 학문 분야의 연구를 발전시키는 데에도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후속연구에서는 표본을 외국으로 확대하거나 경영학의 다른 각론 분야로 확대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연구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Allison, P. D., and Long, J. S. (1990), "Departmental Effects on Scientific Productiv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5(4), pp.469-478.
- Barney, J. B. (1991), "Firm Resources and sustained competitive advantage," *Journal of Management*, 17, pp.99-120.
- Barney, J. B. & Arian, A. M. (2001), "The resource-based view: Origins and implications. In M. A. Hitt, R. E. Freeman, J. S. Harrison (Eds.), *The Blackwell Handbook of Strategic Management* (pp.124-188). Malden, Massachusetts

- : Blackwell Publishers, Inc.
- Becker, G. S.(1962),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0(5), pp.9-49.
- Bellas, M. L. & Toutkoushian, R. K.(1999), "Faculty time allocation and research productivity: Gender race, and family effects," *The Review of Higher Education*, 22(4), pp.367-390.
- Biglan, A.(1973), "Relationship between subject matter characteristics and the structure and output of universit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57(3), pp.204-213.
- Bland, C. J., Center, B. A., Finstad, D. A., Risbey, K. R., & Staples, J.(2006), "The impact of appointment type on the productivity and commitment of full-time faculty in research and doctoral institutions," *Journal of Higher Education*, 77(1), pp.89-123.
- Dundar, H. and Lewis, D. R.(1998), "Determinants of research productivity in higher education,"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39, pp.607-631.
- Grant, R. M.(2002), *Contemporary strategy analysis : Concepts, techniques, applications*, Oxford : Blackwell Publishing Ltd.
- Hesli, V. L., and Lee, J. M.(2011), "Faculty research productivity: why do some of our colleagues publish more than others?," *Political Science & Politics*, 44(2), pp.393-408.
- Kim, J. S., and Kim, S.(2021), "Thirty years of the Journal of Derivatives and Quantitative Studies: a bibliometric analysis," *Journal of Derivatives and Quantitative Studies*, 29 (4), pp.258-279.
- Jung, J. M.(2021), "Citation Analysis of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2003~ 2020),"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38(4), pp.315-337.
- Jung, J. S.(2011), "Analysis of Academic Scholarship by Career Stage Among Korean Acade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Ph.D. thesis.
- Kim, H. H., and Park, J. B.(2011), "Impacts of Professor's Personal Characters and University Research Environments on Research Performances,"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29(2), pp.185-210.
- Lee, E. K.(2020), "Influential Factors of the Research Performance in Business Administration," *Korean Management Review*, 49(6), pp.1621-1641.
- Lee, E. K.(2022), "Characteristics of Research Achievements in Finance and Accounting,"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43(3), pp.23-46.
- Lee, J. S.(2014), "Three essays on empirical labor economics: using data of employment-education from a Korean university," Sungkyunkwan University Ph.D. thesis.
- Link, A. N., Swann, C. A., and Bozeman, B.(2008), "A time allocation study of university faculty,"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27(4), pp. 363-374.
- Long, J. S. and McGinnis, R.(1981), "Organizational Context and Scientific Productiv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6(4), pp.422-442.
- Marsh, H. W. & Hattie, J.(2002), "The relation between research productivity and teaching effectiveness," *Journal of Higher Education*, 73(5), pp.603-641.
- Maske, K. L., Durden, G. C., and Gaynor, P. E.(2003), "Determinants of scholarly productivity among male and female economists," *Economic Inquiry*, 41(4), pp.555-564.
- Noser, T. C., Manakyan, H., & Tanner, J. R.(1996),

- "Research productivity and perceived teaching effectiveness: A survey of economic faculty,"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37(3), pp. 298-321.
- Over, R.(1982), "Does research productivity decline with age?" *Higher Education*, 11(5), pp.511-520.
- Oster, S. M., and Hamermesh, D. S.(1998), "Aging and Productivity among Economist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0(1), pp.154-166.
- Toutkoushian, R. K., Porter, S. R., Danielson, C., & Hollis, P. R.(2003), "Using Publications counts to measure an institution's research productivity,"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44(2), pp.121-148.
- Wanner, R. A., Lewis, L. S. & Gregorio, D. I.(1981), "Research productivity in Academia: a comparative study of the sciences,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Sociology of Education*, 54(4), pp.238-253.
- Wernerfelt, B.(1984), "A Resource-based View of the Firm," *Management Journal*, 5(2), pp. 171-180.
- Xie, Y., and Shauman. K. A.(1998), "Sex differences in research productivity: new evidence about an old puzzl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3(6), pp.847-870.
- Yook, K. H.(2010), "Causal Relationship among Variables of Faculty Performance Evaluation - An Empirical Analysis -," *The Journal Finance and Accounting Information*, 10(4), pp.1-18.

• The author Eui-Kyung Lee is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at Daejin University. He graduated from Sungkyunkwan University and obtained a Master and Ph.D. in business administration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worked as a CPA at Samil Accounting Corporation. His research areas include governance and valuation.